산림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0. 23.(금)

산림청, 우리나라의 소중한 숲,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선정

- 국민, 전문가와 함께 선정한 보호구역 10곳 발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가치 알려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희귀·유용식물 자생지, 원시림 등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으로, 다양한 산림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산림유전자원을 현지에서 보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10선은 전국의 우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후보지를 대상으로 생태적 보전가치, 산림경관,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전문가 평가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종합해 전문성과 국민 참여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

최종 선정된 10곳은 ▲점봉산 곰배령(강원 인제) ▲발왕산(강원 평창) ▲무릉계곡(강원 동해) ▲성인봉(경북 울릉) ▲소광리(경북 울진) ▲안면도(충남 태안) ▲불회사(전남 나주) ▲천관산(전남 장흥) ▲죽림 해송림(전남 진도) ▲수악오름(제주 서귀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이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백두대간의 고산식생과 야생화, 울릉도의 도서지역 원시림, 울진의 금강소나무림 등 지역별로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다양한 산림생물이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우리 숲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책임자	과 장	박영환 (042-481-4240)
		담당자	사무관	박홍덕 (042-481-41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